

건강을 요리하고·이야기하고·나누다
사노피 CHC, ‘랜선 건식 쿡톡’ 사내 캠페인 성료
“직접 만들며 건강한 식생활 배우고 나눠요”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집콕 비만’ 및 불균형 식사문제에 대한 관심 환기 위한 캠페인 진행
- 푸드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줌(Zoom) 건강요리 클래스 및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활용 점심회식 등 비대면 행사로 진행
- 아동을 위한 건강 추천 요리 응모, 영양강정 만들기 등 임직원 참여 건강 꾸러미로 환산해 아동보육기관 기부 예정



[사노피 CHC 사업부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요리를 들고 있는 모습]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21년 10월 20일 수요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대표 파비앙 슈미트, 이하 사노피 CHC)가 2021년 ‘퍼포즈 데이(Purpose Day)’를 맞아 지난 19일 ‘랜선 건식(건강한 식생활) 쿡톡’ 온라인 사내 캠페인을 진행했다.

‘퍼포즈 데이’는 매년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노피 CHC 부서의 전사적 CSR 프로그램이다. 올해의 캠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 ‘집콕 비만’ 및 불균형 식사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과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게더타운(Gathertown)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임직원

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직접 배우고 실천하자는 취지로 유명 푸드인플루언서 이난우 요리연구가와 함께 줌(Zoom)을 활용한 쌍방향 클래스로 팟타이, 영양강정 등 건강 집콕 요리를 만들었다. 이어진 2부 행사는 ‘게더타운(Gathertown)’을 통해 실제 회식 장소처럼 꾸민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참여, 생생한 분위기에서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며 코로나로 장기간 재택근무를 하는 동료들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캠페인의 취지에 맞춰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아동을 위한 건강 추천 요리’ 이벤트를 마련해 임직원이 추천하는 건강요리를 선정하고, 레시피 카드를 제작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참치 토마토 파스타, 병아리콩 강정 등을 비롯해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다수 모였다.

사노피 CHC 사업부는 행사 게시물 댓글, 건강 요리 추천, 건강 집콕 요리 만들기 등 퍼포즈 데이 캠페인 전 과정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활동을 세노비스 키즈 비타민, 영양강정 등이 담긴 건강 꾸러미로 환산해 아동보육기관의 아동 약 100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노피 CHC 사업부 파비앙 슈미트(Fabien Schmitt) 사업부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등원, 등교 등이 중단되며 아이들의 식생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올해의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임직원과 가족,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을 포함한 많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에 헌신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통증 및 고통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세계 100개국 10만여명 이상의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

사노피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는 전세계 소비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셀프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